

해남군 백신 접종자 '여행 인센티브'

20만원 여행상품 5만원 할인 7~8월 코로나 프리 여행주간 운영 해남투어패스도 저렴하게 이용

해남군이 백신 접종완료 관광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관광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전 국민 백신접종률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7~8월을 '코로나 프리' 여행 특별주간으로 정하고 1박 2일 이상 해남을 찾는 백신 접종완료 관광객들에게 1인당 5만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특별상품을 운영한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지 해남을 적극 알리는 한편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물꼬를 더 나갈 방침이다.

백신 접종 완료 관광객들은 기존 19만~20만원의 여행상품을 5만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1박 2일 상품인 '백신안전여행' 첫날은 서울에서 출발해 땅골의 주라기 공원, 공룡박물관과 아름다운 수국정원 4est(포레스트)수목원, 남도명품길 달마고도 트레킹을 한다.

둘째 날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대흥사를 둘러보고 두문산 케이블카를 탑승해 해남의 비경을 한눈에 담아보는 코스로 구성된다.

여행 기간 참가자들은 접종안심배지를 착용해



해남군이 백신 접종완료 관광객들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관광정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 수국정원 4est(포레스트)수목원. <해남군 제공>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해남미소 오피라인 매장을 필수코스로 구성해 지역특산물 구매 활동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별 관광객을 위해서는 5만5000원 상당의 해남투어패스를 5000원에 할인해 판매한다.

주요 관광지 입장권과 식음료 등 할인권이 패키지로 구성된 해남투어패스는 두문산 케이블카와 땅골 모노레일 탑승권, 4est(포레스트)수목원과 땅골 해양자연사박물관 입장권 등 지역 유료 관광지 9곳과 해남 고구마빵 1박스를 함께 모아 5000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인 티몬에서 선착순 100개를 행사상품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여행상품은 백신접종 1차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가 대상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현재 코로나 예방접종 추이로 보면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내 여행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공설운동장 주차타워 등 완도군 체육시설 확충 박차

완도군이 최근 공설운동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등 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완도군에 따르면 주차타워는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등 24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 2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최근 준공했다.

공설운동장이 있는 체육공원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축구 전용 구장과 테니스장, 소프트 테니스, 야구장, 축구장, 역도 훈련장 등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시설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또 전문 체육시설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체육공원 내에 건립하고 있다.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위한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도 추진 중이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은 국비 등 195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7136㎡로 건립되며 현재 공정률은 23%이다. 오는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천후 테니스장은 국비 등 18억 원을 투입, 지상 1층 연면적 1,820㎡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400억원을 들여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며 "완도군에서 개최될 2023년 전남도 체육대회, 2024년 전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및 장애인 체육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연꽃축제가 열리는 일로읍 화산백련지.

무안군 8월 18일부터 5일간 비대면 연꽃축제

무안군의 대표 여름 축제인 연꽃축제가 오는 8월 18일부터 5일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열린다.

무안군은 축제 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연꽃 축제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달 26일 황토 갯벌랜드과학관에서 축제 추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연꽃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주민여론과 축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갯벌 축제에 이어 연꽃 축제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

로 했다. 전체 회의에 이어서 열린 실무회의에서는 축제 준비 기간, 여름 휴가철, 연꽃 개화 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연꽃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또 축제 개최 시기 외에도 중·장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동호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접근성이 좋은 인근 도시의 관광객 유입방안 등 지역 축제와 관광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진도 낙조·다도해 둘러볼 관광 유람선 뜬다

아일랜드 제이호 8월 취항

한반도 가장 아름다운 낙조와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을 둘러볼 진도 관광 유람선이 뜬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자 유치 사업으로 진행되는 관광유람선 아일랜드 제이호(사진)가 오는 8월 취항한다.

35t 규모의 이 유람선은 정원 75명이다.

운항 코스는 진도를 쉬미항에서 광대도(사자섬), '구명섬'으로 불리는 열도, 양덕도(발가락섬), 주지도(손가락섬), 해식동굴과 천년불탑이 있는 불도와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세방낙조 앞 등을 1시간 30분 둘러본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다도해의 수려한 경관과 세



방낙조를 전망할 수 있는 쉬미항-가사 5군도 관광 유람선 취항을 시작으로 진도-제주 간 쾌속카페리도 뜬다"면서 "이제 진도군 해양관광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목포시 콜택시 '목포 낭만콜' 인기 '쑥쑥'

6개월만에 호출 6배 이상 증가

목포시의 브랜드 콜택시인 '목포 낭만콜'이 빠르고 간편한 호출로 이용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목포 낭만콜' 사진 이용객이 운영 첫 달인 지난해 11월 1만2628건을 시작으로 올해 5월에는 7만6875건으로 증가하면서 누적호출 32만516건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목포 낭만콜'은 목격지만 입력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목포지역 전용 모바일 앱이다. 다른 택시앱과는 다르게 전화콜로도 호출이 가능해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및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

초기에는 구글 스토어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폰만 설치 가능했으나 현재는 아이폰 어플도 추가돼 모든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 및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각각 콜센터 운영에 따른 이종배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대기업의 콜택시 사업 진출로 우려되는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선7기 공약으로 '목포 낭만콜' 사업을 추진했다.

'목포 낭만콜'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힘을 합쳐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현재는 목포시내 콜택시 업체(미행콜, 나이스콜, 목포콜, 신광콜)가 '목포 낭만콜'로 통합돼 운행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광군, 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 업무협약

영광군이 한국관광공사와 관광두레 조성사업 상호협력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광두레사업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힘을 모아 공동체를 구성하고 주민의 역량에 맞는 관광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이다. 관광두레PD는 지역의 주민공동체를 발굴하여 주민사업체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무협약에 따라 군은 관광두레PD 활동 협력과 지역 내 관광두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 관광두레사업 홍보 등을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두레PD 인력 및 주민사업체 역량강화를 통한 관광두레 홍보마케팅 지원과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확산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16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2021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2021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접수를 받은 후 오는 9월 말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영광=이종운 기자 jylee@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